

# 五液에 관한 研究

安鍾垠 · 姜政秀\*

## Abstract

### Study on the Five Fluids

Jong Eun An,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Jinaik(津液)" is essential nutritious body fluid for human to be alive, and it can be divided various kinds according to it's location, character, and function.

Five Fluids -sweat, snivel(mucus), slobber(saliva), tear, spittle(saliva)- are kinds of "Jinaik(津液)", and all of them belong to kidney.

They are also related with five organs, such as sweat belongs to heart, snivel(mucus) belongs to lung, slobber(saliva) belongs to spleen, tear belongs to liver, spittle(saliva) belongs to kidney.

We can find out five organs'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conditions by means of observations on the Five Fluids. Five organs' function comes out upper seven openings -two eyes, two ears, nose, mouth and tongue. The Five Fluids provide all the nutrition upper seven openings need, so they can help for human to hear, see, smell, and taste properly.

Key word: Five Fluids(五液), Jinaik(津液).

## I. 緒論

萬物이 생명력을 지닌 生命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無形의 작용력과 이를 바탕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有形의 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인체에서의 유형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것은 津液이라 할 수 있다.

津液이란 津과 液을 합하여 稱하는 것으로 人體內의 正常水液에 대한 總稱으로서 唾液·胃液·腸液과 關節腔內의 液體 뿐만 아니라 漏·涕·汗 등도 包括한다. 다시 말해 汗·涕·淚·涎·唾의 五液은 津液 중 일부로, 津液이 五臟의 作用을 通하여 五液으로 轉化한 것이다. 『醫學入門』에 "腎主液 自入爲唾 入肝爲泣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이라 하여 五臟이 각각 泣汗涎涕唾의 五液을 主하며 腎이 五液을 總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五液은 五臟과 밀접한 關係성을 가지며, 五臟은 그 작용이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上七竅로 나타나게 되므로, 五液은 또한 上七竅에 작용하게 된다.

『此事難知』에 “天六府 氣表 其體在上 其用在下, 地五藏 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 이라 하였는데 註1)에서 이르기를 “五臟은 五運의 木火土金水에 應하고 六腑는 六氣의 風寒暑濕燥火에 應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天干은 運을 取하고 地支는 六氣를 取하는 이치에서 五臟은 天干과 應하고 六腑는 地支에 應하게 된다. 이 天干은 地에서 근원하나 그 用은 天에서 하게됨과 같이 五臟도 그 體는 下인 地陰에 근원하나 그 發用은 上의 天에서 이루어져 人身에서 上七竅의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其體는 下에 있고 其用은 上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地支는 天에서 근원하여 그 用은 地로 내려와 하게됨과 같이 六腑도 그 體는 上인 天陽에 근원하나 그 發用은 下인 地에서 하게 되므로 人身에서도 大小 二便의 排泄作用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其體는 上에 있고 其用은 下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五臟의 작용은 上七竅로 드러나게 되는데, 上七竅는 兩目兩耳鼻口舌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肝主目…… 在竅爲目, 心主舌…… 在竅爲舌, 脾主口…… 在竅爲口, 肺主鼻…… 在竅爲鼻, 腎主耳…… 在竅爲耳”라 하였다. 五臟이 主하는 上七竅의 主作用은 聲色臭味을 감별해 내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五感 중 觸覺을 제외한 聽覺, 視覺, 嗅覺, 味覺의 기능에 해당한다. 『脈度 第十七』에 “五藏常內關于 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 心氣通于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于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于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于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五藏不和則七竅不通, 六府不和則留爲癰”라 하였다. 이러한 聲色臭味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無形의 神의 작용과 有形의 자양물질이 필요한데, 五臟은 각기 神을 藏하고 있으며, 腎은 五液을 主하여 五臟이 開竅하는 耳目口鼻에 津液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듯 五液은 人體內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津液 中 五臟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五臟의 작

용이 드러나는 上七竅에 주로 존재하여 聽視臭味의 작용을 돕는다. 그러므로 五臟과 上七竅의 生理·病理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五液의 이해는 필수적이며, 津液代謝의 과정을 세밀히 밝히는 측면에서도 五液의 연구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로 본 논문에서는 五液의 分類, 五液의 生成過程, 五液의 作用 等 人體를 濡潤·滋養시켜주는 여러 종류의 津液 中 五液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論

### 諸 1 節. 總論

#### 1. 五液의 分類

五液의 分類는 內經의 編마다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類經·疾病類』<sup>2)</sup>에서는 “五液者, 陰精之總稱也. 本篇(「素問·五藏津液別編」)以涕, 汗, 泣, 唾, 水, 故名爲五. 宣明五氣篇H.. 五藏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泪,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 決氣篇H 精, 氣, 津, 液, 血, 脈, 其辨有六. 又道家H 涕, 唾, 精, 津, 汗, 血, 液, 其名則七. 皆無非五液之屬耳.”라 하여, 五液을 때로는 ‘涕, 汗, 泣, 唾, 水’로, 때로는 ‘汗, 涕, 泪, 涎, 唾’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여섯 가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모두 人體 津液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素問·宣明五氣篇』에서 설명하고 있는 肝心脾肺腎의 五臟이 化하여 생성된 五液인 淚汗涎涕唾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津液代謝 中 五液의 分化

입으로 섭취한 食物을 津液으로 化하여 全身으로 보내는 津液대사의 과정에 있어서 營衛氣가 작용하게 되는데, 蔡<sup>3)</sup>는 衛氣의 작용으로 五液이 발현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人稟先天之眞氣 得後天之精氣 滋養發育 而變化以生. 後天之精氣 本於穀氣 尤賴先天眞氣之原動力 發生眞火 蒸氣四佈 而五臟六腑遂如雨露之溉 水穀之氣化 分爲二 曰營 曰衛 爲人生生化之原.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10期 卒業準備委員會, 國譯 此事難知, pp. 52-53,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張介賓, 張氏類經, p. 540, 成輔社, 서울, 1982.

3)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pp. 45-47, 成輔社, 서울, 1983.

衛氣內走臟腑 外達皮毛 其上出之氣 出於口鼻 著於漆石 則爲水焉 其在口舌則爲唾焉 其在於目則爲淚焉 其在於鼻則爲涕焉 其在於耳則爲垢焉 其在於臟腑外層則爲涎焉 其熏膚潤肌出於皮毛則爲汗焉 其下出者則爲溲焉 凡此皆衛氣之所變化也.

營氣一晝一夜 與衛氣大會於手太陰肺 陽津陰汁交相感觸變而爲血 其理已詳於「營衛生會篇」無庸贅述. 若夫精則含於血也 髓則生於精者也 皆腎主之 腎中天一之陽氣 化而爲癸水 男女皆有之 女子之乳 亦由於天一之水 故女子乳子 而癸水不行 凡此無非先天之真氣及後天之精氣所變化也

### 3. 津과 液의 區別

周<sup>4)</sup>는 “氣에는 宗氣, 營氣, 衛氣의 세 종류가 있으며, 精에는 精, 血, 津, 液의 네 종류가 있고, 神에는 神, 魂, 魄, 意與智, 志의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는 五臟이 藏하는 바이다. 무릇 이 열두 가지가 大綱이 되는 것으로, 天地萬物에 통변됨이 셀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五液은 津液이 化한 것으로 津과 液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津亦水穀所化, 其濁者爲血, 精者爲津, 以潤臟腑·肌肉·脈絡, 使氣血得以周行通利而不滯者此也. 凡氣血中, 不可無此, 無此則槁澁不行矣. 發於外者, 泪·唾·汗, 皆其類也. 小便, 其糟粕也.

液者, 淖而極厚, 不與氣同奔逸者也. 亦水穀所化, 藏于骨節筋會之間, 以利屈伸者. 其外出于孔竅, 曰涕·曰涎, 皆其類也.

## 第 2 節. 各 論

### 1. 淚

‘淚’는 눈물로 ‘泪’와 同字이다<sup>6)</sup>. ‘泣’도 역시 눈물로, 소리 없이 우는 것(無聲出涕)을 뜻한다<sup>7)</sup>. ‘涕’도

눈물을 뜻하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第는 ‘차례’의 뜻으로 涕는 차례로 흘러 떨어지는 ‘눈물’의 뜻을 나타낸다<sup>8)</sup>. 『內經』에서는 ‘涕’를 ‘콧물’의 의미로 사용하여 ‘淚’와 구별한다. 『素問·宣明五氣篇』에서는 “肝爲淚”라 하였고, 『靈樞·九鍼論』에서는 “肝主泣”라 하여 淚와 泣을 混用하여 표현하였다.

#### 1) 肝爲淚

肝은 目에 開竅하며, 눈물은 目에서 出하므로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肝爲淚”라 하였다<sup>9)</sup>.

#### 2) 감정에 따른 淚液의 排出

눈물의 분비는 감정상태에 따라 그 양이 늘어날 수 있다. 『靈樞·口問』에서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悲哀憂愁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 搖則宗脈感, 宗脈感則液道開, 液道開, 故泣淚出焉”라 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悲哀憂愁하면 눈물을 흘리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 3) 淚의 作用

淚는 眼睛을 濡潤하고 保護하는 작용을 한다. 正常狀況에서 淚液의 분비는 濡潤作用을 할뿐 外로 넘치지 않는데, 만약 異物質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大量分泌되어 眼目을 清潔히 하고 異物質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sup>10)</sup>.

#### 4) 淚와 神水

眼의 滋養物質<sup>11)</sup> 中 神水는 目内の 水液으로 房水, 目淚도 포함이 된다. 『證治準繩』에서는 房水 및 淚液을 포함하며 三焦에서 發源하여 先天의 真氣로 化하여 目內에 있고, 血이 水를 濡養하며 水는 膏를 滋養하고 膏는 瞳神을 調護하는데 膏外의 水는 神水로 膏를 滋養하고 目を 潤澤하게 하는 精汁이라 하였다<sup>12)</sup>.

4) 周學海: 讀醫隨筆, p. 4, 木과 土, 서울, 2000.

5) 周學海, 讀醫隨筆, pp. 15-18, 木과 土, 서울, 2000.

6) 東亞出版社 編輯局, 東亞漢韓大辭典, p. 999, 東亞出版社, 서울, 1996.

7) 張三植, 大漢韓辭典, p. 786, 進賢書館, 서울, 1981.

8)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제2판), p. 1157, 民衆書林, 서울, 2000.

9)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8, 一中社, 서울, 1990.

10)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8, 一中社, 서울, 1990.

11) 瞳神, 神膏, 神光, 眞血, 眞氣, 眞精, 神水, 黃精, 目系.

12) 盧石善, 原色 眼耳鼻咽喉科學, p. 47, 一中社, 서울.

津液이 目에서 化하면 淚가 되는데 이는 目外를 潤澤하게 하는 水이다. 化하여 神水가 되면 眼內를 充養하는 液이 된다<sup>13)</sup>.

5) 病理狀況

病理情況에서는 눈물분비에 異常이 생기는데, 가령 肝의 陰血이 不足하면 兩目이 乾澁하고 淚液의 分泌가 不足해지며; 風火赤眼, 肝經濕熱 等の 狀況에서는 目眵가 늘어나고 迎風淚流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sup>14)</sup>. 만일 情志 悲哀로 인하지 않고 자주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것은 疾病에 속한다. 悲傷으로 인하여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內經』에서는 시력을 손상하거나, 심하면 失明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5)</sup>. 『靈樞·口問』에서는 또한 “液者, 所以灌精濡空竅者也. 故上液之道開則泣, 泣不止則液竭, 液竭則精不灌, 精不灌則目無所見矣”라고 하였다.

2. 汗

1) 心爲汗

汗을 心の 液이라 하는데 五臟은 液을 化한다. 人身의 水液은 그 根源이 모두 腎에 있고 그 用은 陽의 活動의 府인 膀胱에 있다. 『陰陽別論』에 “陽加於陰 謂之汗”이라 한 것은 陽氣인 心の 君火에 陰水인 津液이 相交한 變化된 水液으로 根源은 腎水나 그 主官은 心이다<sup>16)</sup>.

2) 汗血同源

汗은 津液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血과 津液은 동일한 것에서 함께 나오는 것으로, “汗血同源”의 說이 있다. 血은 또한 心이 主하고, 汗은 血之液으로 氣化되어 汗이 되므로 “汗爲心之液”이라 稱하는

것은 즉 心主汗液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明代 李仲梓는 《醫宗必讀》에서 “心이 藏하는 것은 내부에 있으면 血이요, 외부에 發하면 汗이다. 汗은 心の 液이다.”라고 하였다<sup>17)</sup>.

『營衛生會篇』에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고 한 것은 血과 汗이 水火相交한 결과 나타나 그 생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sup>18)</sup>.

3) 汗의 排出

汗液은 津液이 陽氣의 蒸騰氣化作用을 경과한 것으로 玄府(卽 汗孔)을 따라 體外로 排出되는 液體이다. 《素問·陰陽別論》에서 “陽이 陰에 加해진 것을 일러 汗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清代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汗은 陽氣와 陰精이 融해져서 蒸化되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汗液의 排泄은 衛氣의 腠理에 대한 開闢作用에 依賴한다. 腠理가 열리면 汗液이 나오고, 腠理가 닫히면 汗液이 없게 된다<sup>19)</sup>.

津液과 血液이 汗의 源천이 되는데, 汗의 정상적인 배출은 營衛의 정상운행과 관련되고, 營氣의 內守, 衛氣의 腠理開闢의 생리기능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張介賓의 『景岳全書·雜證·汗證』에는 “汗有血液, 本乎陰也. 經曰, 陽之汗, 以天地之雨名之, 其義可知. 然汗發于陰而出于陽, 此其根本, 則有陰中之營氣, 而其啓閉, 則有陽中之衛氣(汗은 血液에서 化生된 것으로 그 근본은 陰에 있다. 內經에 이르기를 陽의 汗이란 天地의 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히 그 뜻을 알만하다. 그러나 汗이 陰에서 발생하여 陽으로 出하는데, 이것은 그 근본이 陰中の 營氣에서 비롯되고, 開閉는 모두 陽中の 衛氣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다<sup>20)</sup>.

『經脈別論』에서는 “飲食飽甚, 汗出于胃; 驚而奪精, 汗出于心; 持重遠行, 汗出于腎; 疾走恐懼, 汗出于肺; 搖體勞苦, 汗出于脾. 此非汗出于臟也, 各因其臟氣之

1999.

13)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眼科學, p. 10, 中社, 서울, 1990.  
 14)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8, 中社, 서울, 1990.  
 15)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8, 中社, 서울, 1990.  
 16)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p.281, 慶熙大學校 出版局, 서울, 1993.

17) 王琦, 中醫藏象學, pp. 87-88,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18)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p.281, 慶熙大學校 出版局, 서울, 1993.  
 19) 王琦, 中醫藏象學, pp. 87-88,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20)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p. 218, 醫聖堂, 서울, 2001.

動, 鼓津以外出也.”라고 하여 臟氣之動에 따른 汗液의 배출을 설명하였다.

4) 汗의 作用

汗을 “人身之雨”라 하여 一身을 潤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雨는 天地之氣의 相交로 생기는데 上에 있으면 雲이 되고 구름이 비를 이루며, 下에 있으면 霧나 露가 되고 露가 結하면 霜이 된다. 汗은 全身에서 나오며 어느 부분에 局限되지 않는다. 이는 心의 君火가 一身의 어느 부위도 主管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君은 백성의 父母로 하늘이 만물의 父母가 되어 비를 내려 만물에 혜택을 주는 이치에 比喩된다. 따라서 “夏月無汗則 冬爲中風”이나 傷寒에 “不發汗則死”하며 “過汗則亡陽”은 임금의 失德으로 “不能守國”함과 같은 것이다<sup>21)</sup>.

5) 病理狀況

汗과 血液이 生理上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病理上에 있어서도 相互 影響을 준다. 汗과 血의 관계에서 汗出이 過多하면 傷津耗血할 수 있고, 반대로 津虧血少하면 汗源이 不足해지므로 發汗함이 마땅하지 않다. “奪血者是 無汗하고 奪汗者是 無血한다.”라고 한 것은 이 理致를 설명한 것이다. 汗出過多하면 心의 氣血을 耗傷시켜 心悸怔忡 등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고 汗出은 陽氣가 津液을 蒸化시킨 결과로 汗出過多는 人體의 陽氣를 損傷시킬 수 있어 疾病 過程中 大汗淋漓가 나타나면 氣가 液을 따라 脫하여 亡陽, 亡陰의 變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心의 氣血陰陽이 不足하게 되면 病理的 汗이 出하게 되니 예를 들어 心氣虛하면, 表衛不固하여 自汗이 되고, 心陰虛하면 陰不斂陽하므로 盜汗하게 되며, 心陽暴脫하면, 大汗淋漓 혹은 汗出如珠 하게 된다<sup>22)</sup>.

汗出過多하면 心의 氣血이 耗傷하여 心慌, 心悸의 症이 나타나고, 大汗하면 亡陽이 되는데 이는 체온 조절 능력을 喪失하여 精神이 흐려지고 生命의 상

실위기에 놓인 危症이라고 한다. 心氣虛는 表衛가 不固하여 自汗이 나타나고, 心血虛는 영양결핍으로 陽不攝陰하여 盜汗이 나타난다<sup>23)</sup>.

3. 涎

涎은 口津으로 唾液中 비교적 淸稀한 것을 涎이라 한다<sup>24)</sup>.

1) 涎과 唾

涎과 唾는 모두 口腔內의 침을 말하는데, 韓의학에서는 涎은 脾液이 되고, 唾는 腎液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兩者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涎은 양 뺨으로부터 나와서 입에 넘치며, 口角으로 흘러나온다. 唾는 舌下에서 생겨, 口中을 따라서 나온다. 現代醫學에서는 涎과 唾를 모두 唾液으로 보는데, 韓의학에서 말하는 “涎”은 耳下腺을 따라서 분비되는 것이고, 唾는 顎下線과 舌下腺을 따라서 分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涎은 비교적 稀淡하며 上로 口腔內를 潤澤하게 하는 作用이 있고, 唾는 粘稠하며 主로 飲食物의 消化를 돕는다<sup>26)</sup>.

임상에서는 口角에서 涎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脾로써 치료하고, 唾液을 자주 토하는 것은 腎으로 치료한다<sup>27)</sup>.

2) 脾爲涎

脾는 口로 開竅하고 涎은 口로 나오기 때문에 涎은 脾液이라고 한다<sup>28)</sup>.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脾爲涎”이라 하였다.

3) 涎의 排出

옛 사람들은 涎을 口液이라 칭하여 脾에 伏하고

21)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p.281, 慶熙大學校出版局, 서울, 1993.  
22) 王琦, 中醫藏象學, pp. 87-88,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23)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p.281, 慶熙大學校出版局, 서울, 1993.  
24)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5, 一中社, 서울, 1990.  
25)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59, 醫聖堂, 서울, 2001.  
26)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昞 共譯,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 p. 168, 大星文化社, 서울, 1994.  
27)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59, 醫聖堂, 서울, 2001.  
28)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昞 共譯,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 p. 168, 大星文化社, 서울, 1994.

胃에 溢出하여 口에 上行하며 口外로 溢出하지 않는다고 여겼다<sup>29)</sup>. 涎은 脾에서 出하여 胃에서 넘치게 된다<sup>30)</sup>.

4) 涎의 作用

口腔粘膜을 保護하고, 口腔을 潤澤하게 하며, 음식을 먹을 때 비교적 많이 분비되어 음식물을 삼키고 消化시키는 것을 돕는다<sup>31)</sup>.

5) 病理狀況

正常狀況에서 涎液은 위로 입안으로 行하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만약 脾胃不和하면 涎液이 급격히 증가하여 口涎이 自出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된다<sup>32)</sup>.

脾胃의 津이 부족하여 涎이 감소하면 口가 마르며, 脾氣가 虛弱하여 統攝作用을 못하면 涎이 上升하는 것도 圓滑하지 못하며 繼續하여 흐르게 된다<sup>33)</sup>.

만약 脾胃不和하면 종종 口角에서 口液이 流出하여 病態가 된다. 明·章璜은 『圖書編·脾臟說』중에서 “涎者脾之液, 腎邪入脾則多涎”이라고 하였다. 임상에서 脾熱하여 涎이 위로 치솟는 자, 氣弱하여 固攝하지 못하는 자, 心病 口眼喎斜하여 涎이 저절로 흐르는 자, 腎水가 脾胃에 침범하여 流涎한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기타 證을 고려하여 辨證施治해야 한다<sup>34)</sup>.

4. 涕

涕는 눈물과 콧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콧물을 의미한다<sup>35)</sup>.

29)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37, 醫聖堂, 서울, 2001.  
 30)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5, 一中社, 서울, 1990.  
 31)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5, 一中社, 서울, 1990.  
 32)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5, 一中社, 서울, 1990.  
 33)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奭 共譯,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 p. 168, 大星文化社, 서울, 1994.  
 34)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37, 醫聖堂, 서울, 2001.  
 35)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29, 醫聖堂, 서울,

1) 肺爲涕

鼻는 肺竅로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肺爲涕”라 하였다<sup>36)</sup>.

涕는 鼻竅를 潤澤하게 하고 코는 肺의 孔竅이기 때문에 涕는 肺液이라고 한다<sup>37)</sup>.

2) 涕의 作用

涕는 鼻粘膜에서 分泌되는 粘液으로 鼻竅를 潤澤하게 한다<sup>38)</sup>.

3) 涕와 腦

비록 코는 肺의 竅가 되지만, 腦와 더불어 相通하게 되는데 『素問·解精微論』에 있는 “腦滲爲涕”의 설명을 보면 항상 콧물이 흐르는 사람은 頭腦가 맑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素問·氣厥論』에서 “膈移熱於腦, 卽辛頰, 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라고 하였다<sup>39)</sup>.

4) 病理狀況

正常狀況에서 鼻涕는 鼻竅를 潤澤하게 하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sup>40)</sup>.

만약 肺가 邪氣를 받으면 콧물의 分泌와 狀態는 변하게 된다. 만약 風寒의 邪를 받으면 코에 清涕가 흐르고, 風熱의 邪를 받으면 濁涕重涕가 흐르고, 燥에 傷하면 콧물의 분비가 적어져 코가 마르게 된다<sup>41)</sup>. 肺氣가 宣發하지 못하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게 된다<sup>42)</sup>.

2001.

36)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3, 一中社, 서울, 1990.  
 37)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奭 共譯,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 p. 168, 大星文化社, 서울, 1994.  
 38)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3, 一中社, 서울, 1990.  
 39)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29, 醫聖堂, 서울, 2001.  
 40)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33, 一中社, 서울, 1990.  
 41) 羅昌洙 外 17人, 韓의학총강, p. 229, 醫聖堂, 서울, 2001.  
 42)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奭 共譯,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 p. 168, 大星文化社, 서울, 1994.

5. 唾

고대의 醫家들은 침이 口의 津이며, 腎精이 化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腎은 水臟으로 五液을 主하여, 각기 五臟으로 분화된다고 생각하였다. 唾와 涎은 모두 唾液이며, 속칭 “口水”라고 한다<sup>43)</sup>. 또한 唾液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金津”, “玉液”, “醴泉”, “甘露” 등의 명칭으로 불렀다<sup>44)</sup>.

1) 腎爲唾

『素問·宣明五氣篇』에는 “腎爲唾”라 하고, 『靈樞·九鍼十二原』에는 “腎主唾”라 하니 이는 唾가 腎液임을 말하는 것이다<sup>45)</sup>.

唾는 또한 脾胃와 관계가 있는데, 『雜病源流犀燭·諸汗源流』에 “唾爲腎液, 而腎爲胃關, 故腎家之唾爲病, 必見于胃也”라 하였다<sup>46)</sup>.

2) 唾의 作用

唾는 口의 津으로, 口腔에서 分泌되며, 口腔을 潤澤하게 하고, 아울러 飲食物과 섞여 食團을 이루게 하여 목구멍으로 내려가게 한다<sup>47)</sup>.

또한 唾液은 臟腑를 灌溉하고 肢體를 潤澤하게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明代 李時珍은 『本草綱目』에서 “人能終日不唾則精氣常留, 顏色不槁”라 하였고, 清代 汪文綸은 『雜證會心錄』에서 唾液은 “行經絡, 潤腸胃, 生精血, 發靈根”한다 하였다<sup>48)</sup>.

3) 養生法

唾는 腎精이 化한 것으로, 삼켜서 뱉지 않으면 腎中 精氣를 滋養하는 작용을 한다<sup>49)</sup>. 그러므로 中醫

의 養生家, 氣功家는 모두 “咽津”을 특히 重視하였다. 舌抵上顎에 唾液을 끌어들여 입안 가득히 머금고 있다가 삼켜서 腎精을 기르는데, 이 방법을 “飲玉漿”이라 稱한다. 吞咽口津하면 治病, 保健, 養生, 長壽할 수 있다고 여겼다. 『醫心方』에는 “口爲華池, 中有醴泉, 嗽而咽之, 溉潤臟身, 活利百脈, 化養萬神”이라 하였다<sup>50)</sup>.

4) 病理狀況

唾液量의 多少變化는 體內 津液의 盈虛와 水液代謝의 正常與否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脣焦齒枯, 口乾舌燥, 少唾甚 或 無唾 등은 腎陰虛한 사람에게 나타나며; 多唾한 것은 腎陽虛한 까닭이다. 生理的 唾液은 腎精이 化한 것으로, 삼키고 마하지 않으면 腎中 精氣를 滋養하는 작용을 한다. 多唾하거나 久唾하면 腎中 精氣를 쉽게 耗傷시키게 된다<sup>51)</sup>.

임상에서 腎虛와 腎寒에서 나타나는 多唾 이외에, 큰 병을 앓은 후에 胃腸機能이 회복되지 못한 病者에게는 또한 항상 喜唾不休의 증상이 나타난다. 腹內에 蟲積이 있는 경우도 多唾가 나타난다<sup>52)</sup>.

III. 結 論

이상과 같이 五液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津液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滋養物質로서, 존재하는 部位와 性質, 作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진다.
2. 五液은 體內 津液의 종류에 屬하는 것으로, 『內經』에서의 五液의 分類는 篇名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五癰津液別編」에서는 “溺, 汗, 泣, 唾, 水, 故名爲五”라

43)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p. 259, 醫聖堂, 서울, 2001.  
 44) 王琦, 中醫藏象學, pp. 622-623,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45) 王琦, 中醫藏象學, pp. 622-623,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46)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41, 一中社, 서울, 1990.  
 47)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p. 259, 醫聖堂, 서울, 2001.  
 48) 王琦, 中醫藏象學, pp. 622-623,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49)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p. 41, 一中社, 서울, 1990.

50) 王琦, 中醫藏象學, pp. 622-623,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51) 王琦, 中醫藏象學, pp. 622-623,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52)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p. 259, 醫聖堂, 서울, 2001.

- 하였고, 「宣明五氣篇」에서는 “五藏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泪,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라 하였으며, 「決氣篇」에서는 “精, 氣, 津, 液, 血, 脈, 其辨有六”이라 하였다.
3. 五液은 腎臟이 統括하며, 肝心脾肺腎의 各 臟에 入하여 “自入爲唾 入肝爲泣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등으로 分化된다.
  4. 五液의 分化, 代謝 過程은 營衛氣의 作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5. 五液은 五臟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五臟의 生理 病理的 狀況을 五液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6. 五液은 또한 五臟의 作用이 드러나는 上七竅를 자양함으로써 聽視臭味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도록 돕는 作用을 한다.
12. 王琦, 中醫藏象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13.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醫聖堂, 서울, 2001.
  14. 王志善·朱海玉 共著, 鄭東柱·朴炆 共譯, 國譯醫學基礎理論問答, 大星文化社, 서울, 1994.

### 參 考 文 獻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10期 卒業準備委員會, 國譯 此事難知,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서울, 1982.
3.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成輔社, 서울, 1983.
4. 周學海: 讀醫隨筆, 木과 土, 서울, 2000.
5. 東亞出版社 編輯局,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서울, 1996.
6. 張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1.
7.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제2판), 民衆書林, 서울, 2000.
8.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基礎理論, 一中社, 서울, 1990.
9. 盧石善, 原色 眼耳鼻咽喉科學, 一中社, 서울, 1999.
10. 國際韓國學學生會, 東洋醫學叢書 - 中醫眼科學, 一中社, 서울, 1990.
11.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 出版局, 서울, 1993.